

2025. 4.
Vol.85

Blue*note*

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



시설퇴소청년의 자립 실태¹⁾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선임연구위원
전현정 부연구위원

요약

조사목적 사회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배제된 취약청년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정책소외청년'으로 규정하고 이들 삶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일반 청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개발의 근거자료 제공

조사대상 「아동복지법」상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1,984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자립준비청소년 554명, 「소년법」상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청년 123명 등 시설퇴소청년(만 19세~34세) 총 2,661명 대상

조사방법 웹기반 자기기입방식 조사

조사기간 2024년 5월 ~ 7월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과제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시설퇴소 청년의 자립수당 수령 경험

■ 자립수당 수령 여부

- 현재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6.3%, 현재 받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에 받았던 경우는 22.1%,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21.6%임.
- 퇴소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시설 퇴소청년의 93.1%는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시설 퇴소청년은 36.8%,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은 28.5%만이 자립수당을 수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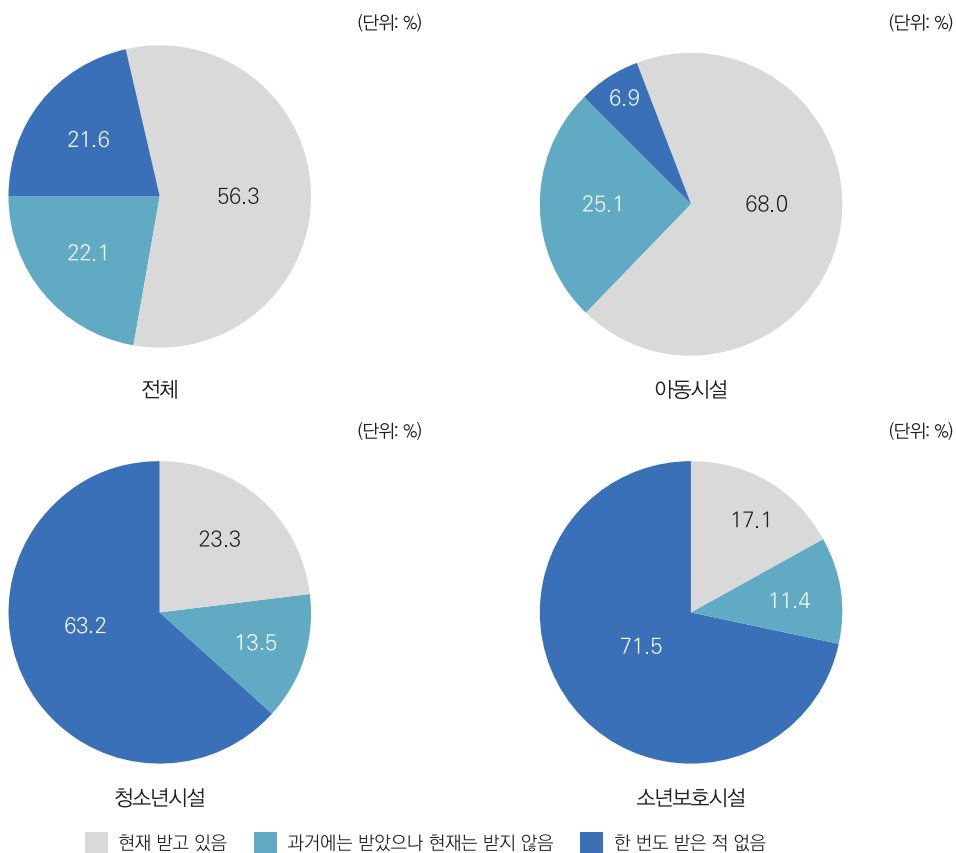


그림 1 자립수당 수령 경험 비율

■ 자립수당을 주로 지출한 항목

- 자립수당을 지출한 주요 항목은 식비가 40.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주거비(23.5%), 저축·보험료·대출상환(15.6%), 문화·여가 생활비(7.0%), 교통·통신비(6.5%), 교육비(4.3%) 순임.
- 퇴소시설별로는 청소년시설 퇴소청년들이 타 시설퇴소청년에 비해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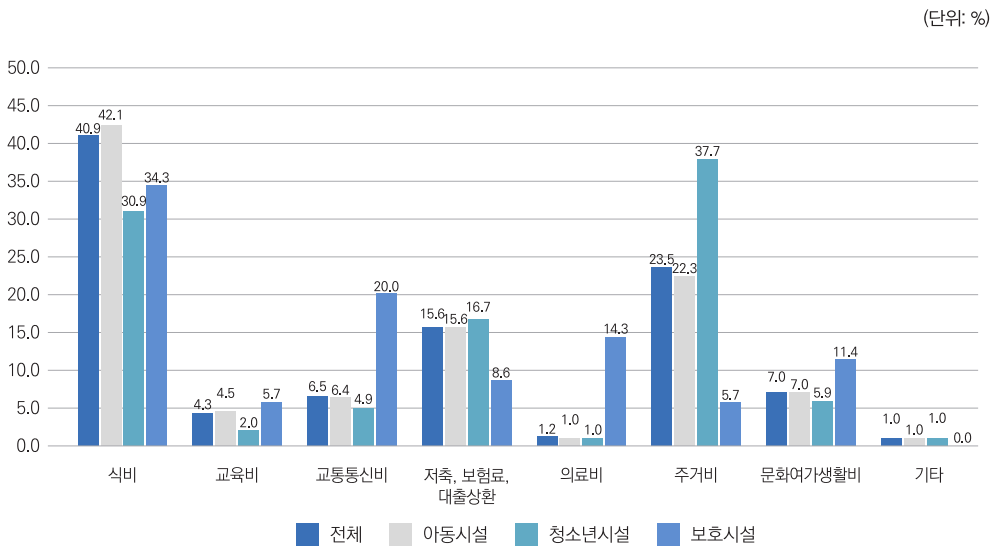


그림 2 자립수당 주요 지출 항목: 시설별

■ 전체 시설퇴소청년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91.85만원으로 일반청년(365.10만원)²⁾의 52.5% 수준이며,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23.57만원이었음.

- 시설퇴소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전체 소득의 약 69.0%(132.46만원)이고, 국가·지자체 등에서 받는 공적 이전소득은 전체의 약 26.0%(49.82만원)를 차지함. 그 외 재산소득은 약 4.7%(약 9.07만원),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액은 약 1.6%(약 3.05만원)임.
- 시설퇴소청년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23.57만원이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식비 41.67만(33.7%), 생활용품 구매비용 및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 생활비 9.48만원(15.8%), 주거비 15.25만원(12.3%), 문화오락비 12.55만원(10.2%), 통신비 10.02만원(8.1%), 주거관리비 9.53만원(7.7%), 교통비 8.70만원 (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일반청년 자료는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외(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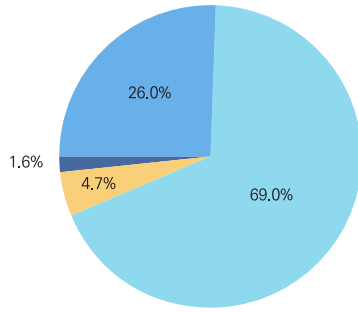


그림 3 한 달 평균 소득(세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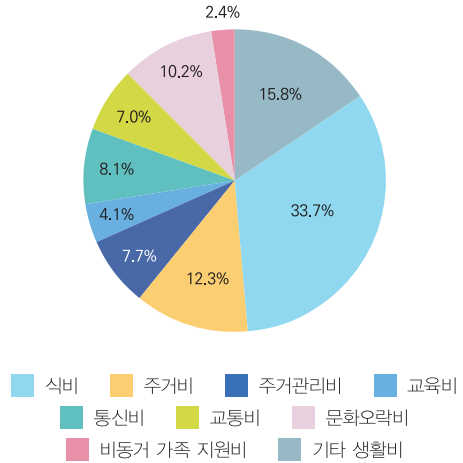


그림 4 한 달 평균 영역별 생활비 구성

* 한 달 평균 소득

-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기준
-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중 순소득
- 3) 재산소득: 재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뺀 금액
- 4) 이전소득①: 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사적이전소득)
- 5) 이전소득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공적이전소득)

- 수급대상 시설퇴소청년들이 국가, 지자체 등에서 받는 공적 이전소득을 퇴소시설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체 조사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응답자는 48.3% 수준이었고,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를 비롯하여 국가, 지자체, 각종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는 현금이나 물품의 금액은 평균 82.99만원으로 보고됨. 이러한 금액은 전체 시설퇴소청년들이 받는 공적이전소득 49.82만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1 (수급자 한정)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

(단위: 만원)

구분		사례 수(명)	평균	표준편차	검증
'24 시설퇴소청년		1,285	82.99	43,915	—
퇴소시설	아동시설 ^a	1,080	87.98	42,728	48,028*** b,c<a
	청소년시설 ^b	169	54.65	40,954	
	보호시설 ^c	36	66.31	38,540	

* $p<.05$, ** $p<.01$, *** $p<.001$

2 자립수당으로 인한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변화

■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 자립수당 수령 경험이 있는 청년들(2,086명)의 자립수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약 32% 내외임.
- 다만 이러한 결과는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저축 증가 및 부채 감소 등 자산형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이에 비해 경제수준이 ‘중’ 이하인 경우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였다는 응답률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립수당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방지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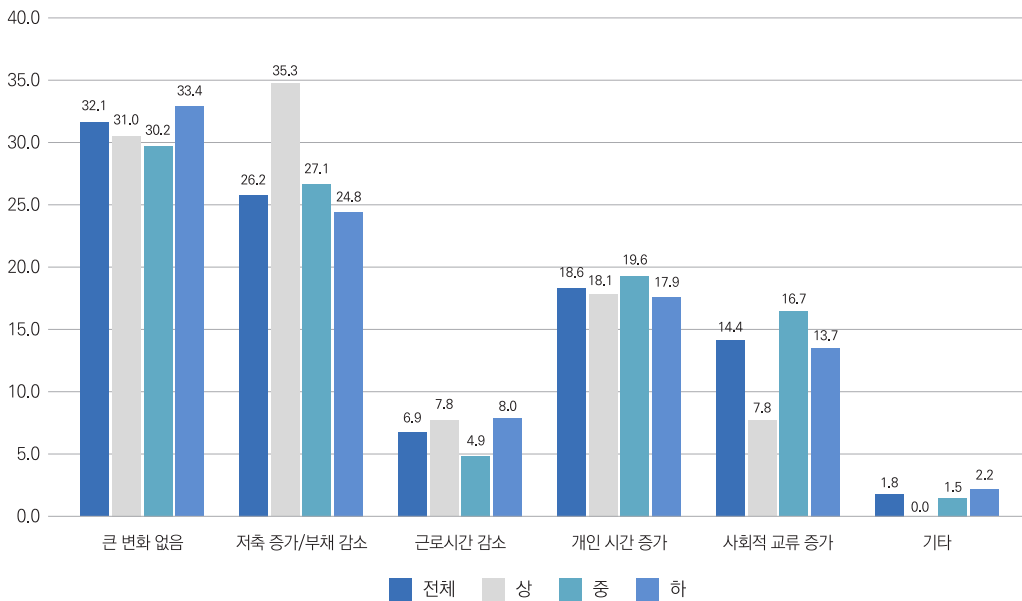


그림 5 자립수당을 인한 생활 변화 : 경제수준별

3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간 관련성

■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 자립수당 수령여부와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간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자립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집단에서 우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집단의 경우 우울 점수가 가장 낮았고 행복도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는 자립수당이 생활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시설퇴소청년들의 심리·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 자립수당 수령 여부와 우울·행복도·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단위: 점)

자립수당 수령 여부	사례 수 (명)	우울*			행복도*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 편차	F검증	평균	표준 편차	F검증	평균	표준 편차	F검증
전체	2,661	1.71	0.756	—	5.06	2.474	—	5.37	2.552	—
현재 받고 있음 ^a	1,499	1.60	0.678	50.613 *** a<b<c	5.33	2.396	21.878 *** a>b,c	5.71	2.454	30.375 *** a>b,c
과거에 받았음 ^b	587	1.75	0.775		4.83	2.344		4.98	2.429	
받은 적 없음 ^c	575	1.96	0.860		4.60	2.704		4.90	2.787	

* $p<.05$, ** $p<.01$, *** $p<.001$

4 시설퇴소청년의 자립수준

■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

- 시설퇴소청년들은 자신의 자립수준에 대해 집(시설)에서 독립하기와 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성취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음. 반면 경제적 독립하기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음.

*참고 1. <자립수준에 대한 인식>

- 경제적 독립, 일자리 얻기, 독립 생활, 스스로 문제 해결,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등 5개 영역
- 자립 성취 정도는 4점(1점: 전혀 성취 못함~4점: 완전히 성취함) 척도로 질문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 자립 수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혀 성취 못함(1)과 성취 못함(2)을 '성취 못함'으로, 성취했다(3)와 완전히 성취했다(4)를 '성취함'으로 재분류하여 응답자의 비율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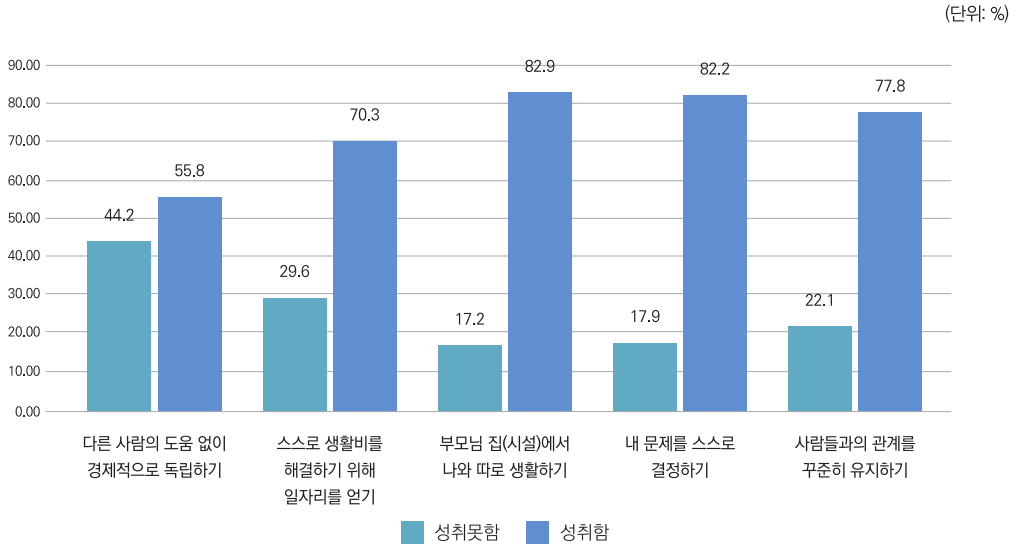


그림 6 자립영역별 자립수준 인식

■ 자립 성취 정도

- 자립 성취도 평균값은 2.90점으로 응답자들은 비교적 자립을 성취한 것으로 인식하는 편이었음. 하위 집단별로는 퇴소시설, 자립지원기간, 자립지원수당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아동시설 퇴소청년들은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퇴소청년에 비해, 자립지원을 3년 이상 받은 청년들은 자립지원을 3년 미만으로 받은 청년들에 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비해 자립 성취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음.
 - 아동시설은 청소년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비해 대부분 퇴소 이전부터 자립 계획에 따라 보다 장기적으로 입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수당 역시 이러한 자립지원의 한 영역으로 본다면 일정 기간 이상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이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함.

표 3 자립 성취 정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검증
전체		2.90	.629	—
퇴소 시설	아동시설 ^a	2.94	.608	17.334*** a)b,c
	청소년시설 ^b	2.80	.656	
	소년보호시설 ^c	2.71	.752	
자립지원 기간	3년 미만	2.88	.631	-2.875**
	3년 이상	2.97	.619	
자립지원 수당 수령 여부	현재 받는 중 ^a	2.95	.598	25.642*** a,b)c
	과거 받은 적 있음 ^b	2.95	.621	
	받은 적 없음 ^c	2.74	.687	

* $p < .05$, ** $p < .01$, *** $p < .001$

■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학력, 거주지역, 퇴소시설, 자립지원기간,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봄.
- 그 결과 자립수준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줌. 즉, 자립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립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 이전부터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4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자립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N=2,661

독립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	B	S.E	β	t	VIF
상수	8,579	.334		25,649***	4,850	.383		12,657***	
더미_퇴소시설 (청소년)	-.615	.116	-.101	-5,320***	-.519	.110	-.085	-4,737***	1,114
더미_퇴소시설 (보호시설)	-.270	.218	-.023	-1,240	-.034	.207	-.003	-.166	1,063
성별	-.285	.090	-.058	-3,168**	-.350	.085	-.071	-4,103***	1,020
학력	.299	.099	.057	3,030**	.163	.094	.031	1,736	1,097
거주지역	.275	.093	.055	2,954**	.260	.088	.052	2,942**	1,048
자립지원기간	-.346	.110	-.058	-3,140**	-.414	.105	-.069	-3,957***	1,034
경제수준	-1,364	.074	-.336	-18,451***	-1,107	.072	-.273	-15,465***	1,063
자립수준					1,198	.069	.306	17,315***	1,066
R ² (수정된 R ²)	.141(.139)				.229(.226)				
	61.810***				97.684***				

*p<.05, **p<.01, ***p<.001

참고문헌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2024).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22).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구, 김문길, 이해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